다이이찌보도 초저필링 결속방사 개발중

일본의 다이이찌보(第一紡)는 단섬유의 다발을 다른 섬유로 묶은 것같은 새로운 종류의 결속방사(結束紡絲)를 개발하여 상품화를 시험하기 시작하였다.

다이이찌보가 “아아사”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실도 같은 종류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결속방사는 단섬유의 다발을 묶는 섬유의 한쪽 끝이 섬유다발의 심(芯)속에 묻혀 있어, 다발을 잘 묶어 줘 실의 모습을 잘 유지해 주도록 한 실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실의 개발은 도요보에 이어 2번째이다. 이 실은 다른 결속사들에서 마찰로 흔히 생기는 필링(pilling)을 크게 막아줌으로써 초저(超低)필링 결속방사가 될 것으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다이이찌보는 하나뿐인 방적 · 편성 · 염색 · 봉제의 일관공장에 이 실을 개발하기 위한 16추 규모의 정방 시험기 한 대를 설치하고, 여러 종류의 샘플실을 만들어 양말, 타월, 스웨터 공장에 부탁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다. 이 실은 순면뿐만 아니라 아크릴/면 혼(混), 폴리에스테르/면 혼 등의 샘플실도 만들어 보고 있으며, 이 실로 만들어진 천도 춘하절 상품으로 머지않아 발표될 예정이다.